



2008 해외배낭여행

연수 결과 보고서

- 팀 명 : 태양원정대
- 연수목적 : 일본의 발전적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접목
- 연수기간 : 2008. 4. 20(일) ~ 4. 26(토) 【6박7일】
- 연 수 국 : 일본(日本)
- 연 수 자 : (팀장) 경영기획팀 이 상 복
(팀원) 법 2 등 김 태 중
 경로재활팀 심 윤 정
 법 1 등 강 영 은

목 차

I. 들어가기

II. 일본 배낭여행

1. 밤이 아름다운 도시 후쿠오카
2. 천년의 수도 간사이 지역
(오사카·교토·고베)
3. 동경과 하코네

III. 맺음말



I 들어가기

일본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과 일제 식민지 통치, 독도 문제 등의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우리나라 수출입액의 7.1%와 15.7% (2007년 국별 수출입 실적, 관세청 자료)를 차지하는 중요한 교역국이다. 우리의 배낭 연수 중인 4.20 ~ 21일에 일본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주의 정신을 토대로 「과거사보다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한일간 신시대」를 열어 나가기로 합의한 것도 이러한 역사적·경제적으로 공통 분모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일본 배낭연수팀인 「태양원정대」는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진정한 화합과 협력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일본의 여러 도시 중 후쿠오카, 간사이 지역(오사카·고베·교토), 동경 그리고 하코네를 여행하는 배낭연수를 통하여 우리 대덕구가 추구해야 할 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공무원으로서 일본에 대한 문화체험으로 견문을 넓히고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II 일본 배낭여행

1. 밤이 아름다운 도시 후쿠오카

일본의 큰 섬들 중에 가장 아래에 위치해 있는 규슈(九州)는 후쿠오카(福岡)와 오이타(大分), 나가사키(長崎), 사가와 구마모토(熊本)등을 통틀어서 기타큐슈(北九州)로 칭하기도 한다. 특히 규슈의 관문인 후쿠오카는 중심도시로써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이다. 견수(遣隋)·견당사(遣唐使)의 기지로서 번영하였고, 15~16세기에는 명(明)나라와의 무역과 성읍으로서 번영하였다. 메이지(明治) 때는 후쿠오카와 하카타(博多)가 합병되었고, 쇼와(昭和) 때는 기타큐슈(北九州)의 중화학공업과 지쿠호(筑豊) 등의 석탄광업의 발전에 따라 규슈 제일의 대도시로 발전하였다.

공업은 화학·방직·기계·인쇄제본·식료품 공업 등 외에 하카타 견직물·하카타 인형 등의 전통산업도 활발한 상업도시이다. 하카타 어항은 서일본의 원양어업기지로서, 어획량은 전국의 2~3위를 차지한다. 철도는 산요신칸센(山陽新幹線)·가고시마본선(鹿兒島本線)이 통하고 지쿠히(筑肥)를 비롯하여 4개 지선

이 분기하며, 항공선은 국내 각지를 비롯하여 홍콩·타이베이(臺北)·서울·부산 등지와 통한다.

인구 140만의 후쿠오카는 후쿠오카 현의 중심지로 일본에서는 8번째로 큰 도시이며 연평균기온이 약 16.3°C로 1년 내내 따뜻하며 나라, 헤이안 시대(平安)부터 무역항으로 발달해 해외 문화를 받아들이는 요지였다.

후쿠오카는 현재 일본 4대 공업지대의 하나인 북부 규슈 공업지대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으며, 하카타(博多)항에서는 현재 미국, 아시아, 오스트리아. 중동 등에 철, 강철, 시멘트, 화학제품 및 고무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다.

후쿠오카시는 나가강을 중심으로 동부 지방을 하카타(博多), 서부지방을 후쿠오카라고 하는데 하카나 지역은 무역도시로 지금도 상업, 무역의 중심지이며 후쿠오카지역은 에도시대 구로다(黒田)장군이 통치한 곳으로 성을 중심으로 일본 서부지역의 정치적 중심지로 외국의 공관, 외국 정부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후쿠오카는 변함없이 시 경영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1889년 정치·문화권의 중심지인 하카타를 합쳐 현재의 후쿠오카시로 통일됐다.

후쿠오카는 규슈의 가장 현대적인 도시인 동시에 하카나오리 같은 실크제품이나 하카나인형과 같은 전통 인형등 많은 전통 민속품도 지니고 있어 지방의 전통 문화도 맛볼 수 있다.

한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로써 항공으로 약 1시간30분 정도 소요되며,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과 재일교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규슈의 명소중의 하나이다. 몇년전인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자매지인 배런스(Barron's)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7개 도시를 선정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후쿠오카가 포함되었다고 한다.

후쿠오카 공항에서 15분 거리인 후쿠오카 중심지에 있는 하카다구에 위치한 크레센트 사쿠라 민박에 짐을 푼 우리는 낮선 외국의 첫날을 불안하게 시작하였다. 우리의 첫 목적지는 후쿠오카 타워였는데 우리는 버스노선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버스승강장 옆에 있는 기계를 버스승차권을 발매하는 자동판매기로 생각하고 동전을 넣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무인 주차장의 정산기라는 것을 아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거리에서 방황하던 우리는 한 라멘집 앞에서 여주인의 장시간의 친절 한 설명에 버스시간도 남고 길 안내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본에서의 첫 식사를 라멘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원래 우리의 계획은 민박집 주인의 자세한 안내를 기대하였으나 우리가 투숙한 민박집은 흔한 홈페이지도 개설하지 않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신설 민박집이었다. 간신히 버스를 탄 우리는 목적지를 후쿠오카 타워에서 후쿠오카에서 제일 변화

하다는 캐널시티와 텐진으로 변경하였다. 일본의 버스는 뒤에서 타서 앞으로 내리는데 승강장에 도착하지 않으면 버스 문을 개폐하지 않는다. 따라서 버스를 따라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교통문화와는 사뭇 달랐다.



일본의 버스는 뒤에서 탈 때 자동 발급된 승차권에 기록된 지역번호대로 요금징수

텐진의 지하상가는 일본의 대도시 지하 상점들과 달리 카페 같은 약간 어두운 조명에 인테리어가 개성 있었으나 질서 있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캐널 시티의 입구에는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작품이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 후쿠오카의 마지막 여행지는 캐널시티 옆의 나카스의 포장마차였는데 초저녁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규모가 큰 것은 아니었고 음식도 가격에 비해 풍성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카스의 밤거리는 아름다웠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후쿠오카에서 우리는 무인주차장을 보았는데 무인주차장 이용객은 자동코인센터에서 출차시 주차시간요금을 내고 차를 빼면 된다. 일종의 주차자판기인 셈이다. 차를 대면 바닥에서 정산을 하지 않고는 출차를 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돌출된다. 정산을 마치면 자동으로 잠금장치가 해제되면서 차를 뺄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전 과정이 관리인이 없이 자동으로 돌아간다. 우리와 같이 주차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2~5대 정도의 소규모로 설치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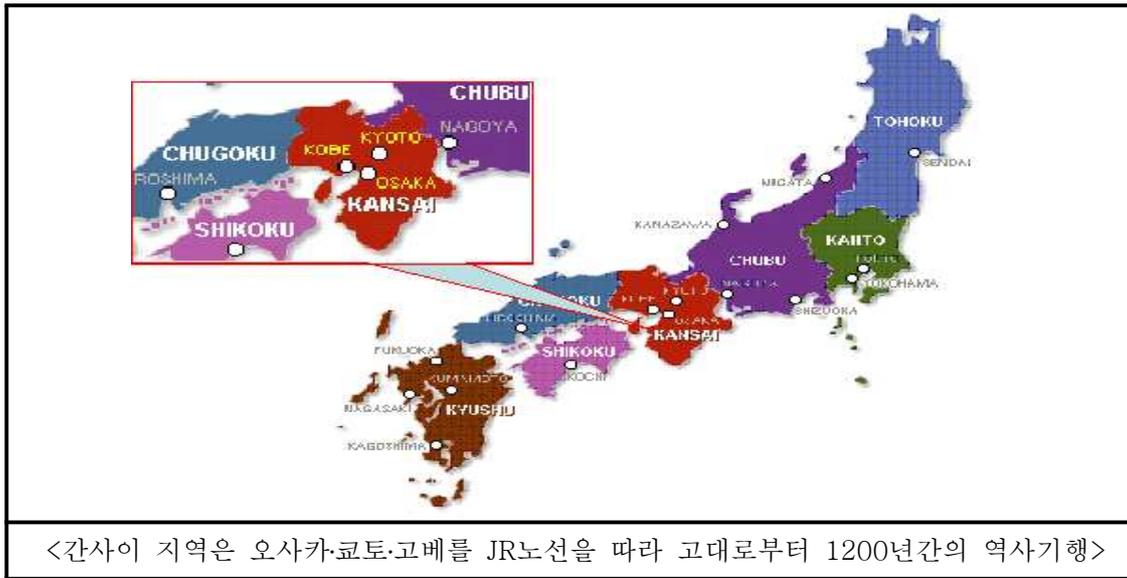
<일본의 무인 주차장 정경> <정산을 마치면 돌출된 잠금장치가 풀림>

『광주시가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본 주요도시
에 대한 두 번째 세일즈 콜 마케팅 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일본 나
고야, 오사카에 이어,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후쿠오카, 기타큐슈 등을 방문해
현지 여행업계 등 관계자에 대한 관광간담회와 함께 관광객 유치활동을 벌인다는
것. 시는 이번 세일즈 콜을 통해 광주권 관광에 대한 대일본 인지도를 높이고 관심
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주요 관광자원을 동영상으로 제작, 현지여행사를 방문해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의 비엔날레, 김치대축제, 정율성국제음악회, 임방울국악
제, 국제광산업전시회 등과, 전남의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순천만 갈대축제 등을 연
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위 글은 「뉴시스 통신」의 지난 5.25일자 기사이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우리주변의 자치단체는 우리에게 가까운 일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김
치대축제」를 관광 상품으로 세일즈 마케팅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평범한
모습이 외국인에게는 얼마나 신기하고 아름다운지 모른다. 2008.7월부터 일
본 취항(제주·한성항공)을 앞두고 있는 청주공항을 활용하여 우리의 계족산
과 동춘당 등 문화유산을 그리고 대전의 관광 자원을 일본의 관광객에게 판
매할 수는 없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2. 천년의 수도 간사이 지역(오사카·교토·고베)

일본은 크게 나누어 북쪽으로 부터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슈의 4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혼슈의 남단에 위치한 간사이 지역에서 일본정치
의 중심이 에도(東京)로 이동한 것은 17세기의 초기로, 1500여년에 걸친 긴 일본
역사 속에서 극히 최근의 일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때까지 일본의 수도
는 주로 칸사이(關西)에 위치하여 있었다. 최초의 수도는 서기 645년에 현재
의 오사카에 위치한 나니와노미야(難波宮)로, 이후 곧 오미(시가;滋賀)로 옮겨
져, 710년에 헤이조쿄(나라;奈良)로, 그 후 나가오카쿄(교토;京都)를 거쳐, 794
년에 헤이안쿄(교토)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 이후 교토는 1868년까지, 1000년
남짓의 긴 세월에 걸쳐 일본의 수도로서 자리를 지켜왔다. 무가(武家) 정치에
의한, 정치의 중심이 에도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칸사이는 정치·문화의 중심
지였다. 중국,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해진 대륙문화·문명도 세토나이해를
거쳐, 먼저 칸사이로 전해진 후, 칸사이에서 일본전토로 전해졌다. 일본의 다
도(茶道), 꽃꽂이, 예능, 건축물 등의 문화에서 일본의 풍속, 상업, 생활습관에
이르는 이 대부분의 원류는 칸사이에 있다. 말하자면 칸사이는 일본문화, 일
본경제의 요람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사카는 면적은 221.30km², 인구는 247만 4579명(2002)이다. 시역(市域)은 우에마치 대지(上町臺地)와 요도가와강(淀川)의 삼각주로 이루어져 있다. 우에마치 대지는 오사카성(城) 부근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12km, 너비 2~3km, 해발고도 20m의 대지이고, 요도가와강 델타는 요도가와강의 여러 분류인 신(新)요도가와강·아지강(安治川)·시리나시강(尻無川)·기즈강(木津川) 및 남쪽의 야마토강(大和川)의 유역과 오사카만 연안을 포함하는 일대로 해발고도가 5m 이하의 저지이다. 삼각주 지대에는 주위의 소하천 외에 운하가 많이 굴착되어 있어 시역의 11.2%가 수역(水域)이다. 따라서 흔히 ‘물의 도시’로 불리고, 또 다리가 약 840개에 달하여 ‘다리의 도시’로도 불린다. 삼각주 지대에는 공장지대가 펼쳐져서 지하수를 많이 퍼올려 쓰기 때문에 지반침하(地盤沈下)가 심한데, 특히 신요도가와강 하류 유역에는 1934년 이래 2.5m가 침하한 곳도 있어 방조제(防潮堤)를 축조하였다. 기온은 1월 평균 4.5℃, 8월 평균 28℃, 연평균 15.6℃로 겨울에도 온난하고, 연강수량은 1,390mm로 일본에서는 적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서풍이 많이 불어 임해공업지대로부터의 매연에 의한 공해가 시역에 널리 미친다.

고대에는 나니와(難波), 중세 이후에는 오사카(大坂) 또는 오사카(小坂)로 부르다가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 현재의 지명으로 고쳐졌다. 일본문화의 여명기인 아스카시대(飛鳥時代:6세기 말~7세기 중엽)부터 세토나िका이와 수도 아스카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을 이루어, 한반도를 비롯한 대륙문화를 받아들이는 문호로서 발전하였다. 1583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오사카성(城)을 구축함으로써 다시 활기를 되찾아 급속한 발전을 보였다. 도요토미 정권 멸망 이후 오사카는 도쿠가와 막부(徳川幕府)의 지배하에 들어갔

으나, 요도가와강의 수운이 열리고 전국 각 영주(領主)의 쌀을 비롯한 물자교역지가 되어 상업도시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에도시대(江戸時代)에 이미 에도 및 교토(京都)와 더불어 3대 도시로 일컬어졌다. 메이지유신 후에는 재빨리 근대공업을 일으키고, 개항(開港)·축항에 의해 상공업도시로서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의 번영을 이룩하였다.

전형적인 상공업도시로 상업·공업 이외의 산업은 극히 미미하다. 에도시대 이래의 상업도시로서의 전통을 지니고 있어서, 도쿄(東京)와 더불어 일본을 동·서 2개의 상권(商圈)으로 나누고 있다. 상업은 도매상의 지위가 매우 높다. 도매상가는 센바(船場)·시마노우치(島之内) 등 구시가지에 많고, 혼마치(本町)·도부이케상가(池筋)의 점유, 도쇼초(道修町)의 약종(藥種), 마쓰야초(松屋町)의 과자·완구, 니혼바시상가(日本橋筋)의 전기기구 등 동일업종이 동일 지역에 집중하는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도매상가에 인접한 도지마섬(堂島)과 나카노섬(中之島) 등에는 금융기관·무역상사가 있어 경제의 핵심지역을 이루고 있다. 또 한신(阪神)공업지대의 중심을 이루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경공업도 활발하다. 공업지구는 북부·동부·서부의 3지구로 나뉜다. 북부지구에서는 면직·염색·방직·제약·화학공업, 동부지구에서는 기계부품·완구·모자·안경 등의 공업, 서부의 임해지구에서는 철강·금속·기계·조선·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이 활발하다.

도쿄와 더불어 일본의 2대 교통중심지이다. 신칸센(新幹線)을 비롯하여 철도·지하철·도로가 발달하여 교토(京都)와 나라(奈良)·고베(神戸) 등 인근의 도시 및 관광지를 연결하고 있다. 오사카항(港)은 부두설비가 갖추어진 근대적 항만으로 세토나이카이를 중심으로 국내항로 외에 외국항로의 화물선 출입도 빈번하다. 지역 밖의 북서쪽에는 오사카 국제공항이 있고, 오사카만에는 간사이(關西) 국제공항이 있다. 오사카에는 교토·나라 등의 인근도시에 비해 관광자원은 많지 않으나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인 만큼 유적지가 많다. 오사카성(城)을 비롯하여,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의 하나인 시텐노사(四天王寺), 일본의 3대 민속제전의 하나인 천신제(天神祭)로 유명한 덴만궁(天滿宮) 등의 사찰·신사(神社)가 있다. 한편 도톤보리(道頓堀)·센니치마에(千日前)·난바(難波) 등지를 포함하는 속칭 미나미(南)와 우메다(梅田新道)를 중심으로 하는 속칭 기타(北) 등지는 환락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밖에 미술관·박물관 및 스포츠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다. 오사카는 약 30만명의 한국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인데, 특히 시(市) 동부의 이쿠노구(生野區)는 전국적으로 보아 한국 교포가 가장 많이 사는 지구이다.

우리가 머문 숙소는 한국 여행객들이 많이 여행하는 오사카 최고의 중심가

인 난바(難波), 도톤보리(道頓堀)에서 도보로 15분거리에 위치한 오사카하우스라는 민박집이었는데 4.21일부터 2박3일간의 여정을 보낼 수 있었다. 첫째 날인 4.21일은 도톤보리 강을 사이에 두고 먹다가 망한다는 오사카 최고의 먹자거리인 도톤보리와 에도시대부터 역사가 깊은 쇼핑의 거리로 늘 신선한 화제와 문화정보를 창조해 내는 활력이 넘치는 거리로 700m에 걸쳐 수 많은 상점과 볼거리로 세계적인 명성을 이어가는 오사카 최대의 관광명소이다. 무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중국어와 한국어가 번갈아 들리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서양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업도시 오사카의 역사와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모이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가 대전의 은행동을 생각해 보았다. 끊임없이 청소년들이 모여들고 또 상점이 들어서고 무엇이 그들을 유인하는 것일까? 오사카와 대전의 은행동은 테마가 있었다. 먹자거리와 길게 들어선 쇼핑상가 그리고 청소년들의 마음을 풀어줄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는 것은 아닐까? 즉 먹다가 망할 만큼 먹을거리가 많이 있는 곳, 무엇이든 살수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쇼핑가가 펼쳐진 곳, 청소년들의 놀거리가 다양하게 있는 곳으로 각각의 장소가 특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도톤보리의 글리코맨 간판>

<신사이바시 스지>

☞ 글리코맨은 어린이 과자에 세계최초로 장난감을 넣어서 판매한 과자회사 글리코겐의 간판

4.21일 저녁 우리는 도톤보리의 명물 복치는 삐에로 인형이 있는 구이다오레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세면을 마치고 다음날의 여행계획을 짜던 우리는 H-enterprise의 이동철 대표를 만나면서 배낭연수의 전기를 맞게 된다. 이 사람은 평소에 업무상 일본을 비롯한 해외여행을 자주하는 사업가인데 우리가 교토와 고베 여행에 대해 갑론을박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여행 경험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여행의 참 맛은 즉흥적으로 가고 싶은 곳을

정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4.22일 우리는 JR노선을 활용하여 신간센을 타고 교토에 갔다.

교토는 교토부의 부청소재지이다. 11개구(區)로 나누어지며, 시역(市域)은 교토분지와 분지를 동쪽·서쪽·북쪽으로 둘러싼 산지에 걸쳐 있다.

교토분지 가운데 북쪽에서 동쪽에 걸친 지역은 가모가와강(鴨川 또는 賀茂川)과 그 지류 다카노강(高野川)·시라카와강(白川) 등에 의해 형성된 선상지이고, 서쪽에서 남쪽에 걸친 지역은 가쓰라가와강(桂川)·가모가와강·우지강(宇治川) 등에 의해 형성된 충적평야이다. 분지를 둘러싼 산지는 방위에 따라 각각 히가시야마산(東山)·니시야마산(西山)·기타야마산(北山)이라고 한다.

여름에는 30℃를 넘는 날이 많아 몹시 무덥고, 겨울에는 1월 평균최저기온이 영하 0.9℃로 아주 낮은 기온이 아닌데도 분지에 냉량다습(冷涼多濕)한 공기가 피어 체감온도가 매우 낮다. 비는 주로 여름에 많이 내리며, 연평균강수량은 1,579mm이다.

교토분지는 주로 한반도 및 대륙에서 건너온 귀화인(歸化人)에 의해 일찍이 개발됨에 따라 토지의 개척·관개에 의한 농업생산과 양잠·견직(絹織) 등의 산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794년 이곳에 새 도읍 헤이안경(平安京)을 조영하고 천도하였다. 그후 400년 간에 걸친 헤이안시대(平安時代)에 국정의 중심지로 변형하였으나, 바쿠후(幕府) 정치의 시작과 더불어 정치적 기능을 상실하였고, 에도시대(江戸時代:1603~1867)에는 정치의 중심이 에도(지금의 도쿄)로 옮겨짐에 따라 형식상의 수도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과 더불어 도쿄로 천도할 때 인구 50만의 대도시가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경제·문화의 중심지이자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산업은 공업·상업과 함께 관광업이 발달하였다. 공업은 전통 공업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색인데, 대표적인 것으로 견직물 니시진직(西陣織)의 직조업과 가모가와강·가쓰라가와강의 물을 이용한 유젠염(友禪染)이라고 하는 염색업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기요미즈도기(清水焼)·짚부채·인형 등의 공업과 술·과자류·장아찌류 등 전통적인 식품공업 등이 유명하다. 무로마치정(室町) 일대에는 전국 최대의 견직물 도매상가가 형성되어 있다. 전국적인 학술·문화 도시로, 교토대학·도시샤대학(同志社大學) 외에 많은 대학과 박물관·미술관·국제회관 등 문화시설이 있다.

관광명소로는 옛 왕궁인 교토고쇼(京都御所)와 도쿠가와가(德川家)의 재경거관(在京居館)인 니조성(二條城)·가쓰라이궁(桂離宮:別宮)이 있고, 이 밖에 히가시혼간사(東本願寺)·니시혼간사(西本願寺)·긴카쿠사(金閣寺)·긴카쿠사(銀閣寺)·

난젠사(南禪寺)·도사(東寺)·고류사(廣隆寺)·류안사(龍安寺)·기요미즈사(清水寺)·헤이안신궁(平安神宮) 등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찰·신사가 2,000여 개 남아 있다. 우리는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아스가 건축한 정원이 아름다운 니조성과 “일본인이 교토하면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곳” 청수사를 보고 전통 먹거리가 풍부한 기온거리를 구경하고 고베로 바쁘게 이동했다.

인구 148만, 일본본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고베는 북쪽으로 롯코산(六甲山), 남쪽으로는 세토나이카이에 의해 둘러싸인 아름다운도시이다. NBA의 코비브라이언트의 아버지가 고베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아들 이름에 코비라고 붙인 것도 유명한 이야기이다. 효고현[兵庫縣]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를 이루는 국제무역도시로, 일본 제3위의 무역항이다. 한신공업지대[阪神工業地帶]의 중심지로서, 방직·조선·전기기기·차량·제철·제강·고무·제당 등의 공업이 발달하였다. 철도는 JR 토카이선[東海線] 등 7개 노선이 통과한다. 우리가 생각한 고베는 1995년 1월 17일 일본의 지진관측사상 최대의 파괴력을 지닌 대지진인 고베 대지진이였다. 일본 간사이(關西) 지방 효고현(兵庫縣) 남부의 고베시 지역에서 발생한 이 지진은 진도 7.2의 강진으로 사망 6,300여 명, 피해액 1400억 달러로 집계된 최악의 자연재해였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고베 대지진이후 고베를 새로운 계획도시로 탈바꿈시켰다. 지진피해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화려하고 세련된 고층빌딩들이 더욱 튼튼하고 건실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고베는 역사적으로 외래문물이 유입된 항구로써 무역의 기지이며 서구열강의 강제개항과 더불어 외향적인 성격이 강한 도시로 변모되었다. 또한 일본에는 4,183개의 고등학교 야구팀이 있는데 매년 8월에 열리는 갑자원 대회는 전 일본의 최고의 축제로 바로 고베 동쪽 고오시엔(갑자원)에서 개최된다.



<메리칸파크내 지진기념물>

<기타노이지칸가>

우리는 씨티루프버스를 타고 1995년 고베대지진을 잊지 않으려고 약 100m

길이의 길을 잘라서 보존한 기념물과 해양박물관이 있는 메리켄 파그와 모자이크 상가, 고베시청을 거쳐 메이지유신 때 일본이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개항한 고베에는 외국인 저택이나 영사관을 보존한 기타노이진칸가에서 고베의 일정을 마치고 도쿄로 향했다.

일본에는 일본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간사이 지역을 여행하면서 일본인들의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소한 것도 의미 있는 관광자원으로 탈바꿈 시키는 그들의 재능과 노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995년의 고베 대지진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여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메리언 파크의 지진 기념물, 명치유신의 개항기에 외국인 주택을 보존한 기타노 이진칸, 오사카 도톤보리의 한 음식점 앞의 복치는 인형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간센 열차안의 소형 물건거치대, 열차 민원실의 짐받이는 우리에게 감동적인 배려의 한 모습이었다.



<도톤보리 구이다오레의 복치는 인형>

<신간센 짐받이>

3. 동경과 하코네

4.23일 저녁에 도착한 우리는 신주쿠에 가까운 JKT민박에 여장을 풀고 신주

쿠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 한국인들이 많은 지역이라 음식도 입에 맞고 이국적인 정취도 느낄 수 있었다. 간사이 지역의 여행 경험으로 거미줄 같은 철도 이용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우리는 다음날 6시에 출발하는 하코네 여행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코네는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縣) 남서부 아시가라시모군(足柄下郡)의 읍이다. 하코네를 통틀어 일컫는 하코네 화산의 칼데라 전역을 차지하며, 산과 호수와 삼림의 수려한 풍경과 많은 온천, 게이힌(京濱) 지방에 가깝다는 3가지 조건에서 전형적인 관광지역으로 발전하였다. 읍역(邑域) 전체가 후지하코네이즈(富士箱根伊豆) 국립공원의 하코네 지구에 포함된다. 골프장·캠핑장·스케이팅장 등이 정비되었고, 버스로도·등산전차·케이블카·로프웨이·유람선 등이 종횡으로 통해 있다.

일본은 전체적으로 산에 길게 뻗은 수종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나무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단 산소들과 낮은 야산들이 많지만 일본은 화장 문화가 발전하여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장모 선전물들이 다수 있을 정도로 산에는 나무들만이 울창하게 들어서 있다. 참 부러운 광경이었다. 특히 하코네는 온천지대와 주변의 호수들이 어울어져 세계적인 관광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가는 길에 들렀던 후지산 등정의 무산을 아쉬워 하며 우리는 동경으로 발길을 돌렸다.

아침 6시에 출발하여 JKT민박에 돌아오니 저녁 9시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신주쿠 구경을 가기로 했다. 신주쿠는 동경 최대의 변화가이다. 많은 술집들이 젊은이들의 밤 문화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있었다. 몇 블록을 지나치다가 우리는 용기를 내어 일본에서 처음으로 선술집에 들어갔다. 학생 같아 보이는 아가씨가 주문을 받았는데 가격은 약간 비쌌지만 하루의 피곤함을 한 병의 맥주로 가볍게 풀고 걸어서 민박집에 돌아왔다.

다음날의 동경 여행은 5일간의 경험 축적(?)으로 여유로움으로 시작되었다. 동경은 면적이 2,187.05km², 인구는 1181만 8845명(2002)이다. 도쿄는 황궁(皇宮)을 중심으로 한 23개 구(區)의 구부(區部), 그 서쪽의 3다마지구(三多摩地區) 및 이즈제도(伊豆諸島)·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를 포함하는 3개 지역으로 대별된다. 이 3개 지역을 합쳐 도쿄도(東京都)라고 하며, 행정상 23특별구·27시(市)·5정(町)·8촌(村)으로 나뉜다. 도청소재지는 신주쿠구(新宿區)에 있다. 일반적으로 도쿄라고 할 때에는 23구의 구부를 말한다. 도쿄의 인구는 도(都)의 인구에 있어서도 런던이나 뉴욕을 앞질러 세계 제1위이고, 구부 인구, 즉 시역(市域)의 인구도 역시 세계 제1위이다. 인구밀도는 1km²당 5,293명으로 최저인 홋카이도(北海道)(73명)의 70배를 넘고 있다.

지형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간토산지(關東山地), 다마구릉(多摩丘陵)·사야마구릉(狹山丘陵), 무사시노대지(武藏野臺地)·아라카와강(荒川)·에도강(江戸川)의 층적지 순으로 계단 모양으로 낮아져서 도쿄만(東京灣)에 임한다. 간토산지는 도의 서쪽 경계에 있는 구모토리산(雲取山:2,018m)을 최고봉으로 하여 1,500m 이상의 산봉이 이어지는 장년기 산지로, 산지를 깊이 침식하는 다마강(多摩川)과 그 지류 아키카와강(秋川)이 뛰어난 계곡미를 형성한다.

산록에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여러 작은 구릉과 다마구릉이 이어지고, 대지를 사이에 끼고 사야마구릉이 가로놓여 있다. 무사시노대지는 오메시(青梅市) 부근을 정점으로 하여 남동방향으로 경사하는 평탄한 홍적대지(洪積臺地)로 해발고도 20~190m이다. 대지는 간토흙(關東loam)으로 불리는 화산회토(火山灰土)로 덮여 있으며, 중앙 부근에 샤쿠지이(石神井)·젠푸쿠지(善福寺)·이노카시라(井之頭) 등의 용천(湧泉)이 있으나 기타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하수가 깊다. 대지의 동단부는 높이 약 20m의 벼랑에 의해 층적저지와 경계하는데, 그 말단부의 대지는 용천에서 흘러내리는 많은 하천의 침식곡에 의해 분리되어 혼고대(本郷臺)·도시마대(豊島臺)·요도바시대(淀橋臺)·메구로대(目黒臺) 등 작은 대지군을 이룬다. 동부의 대지상에 형성된 시가지를 ‘야마노테(山手)’라고 하여, 저지부의 시가지 ‘시타마치(下町)’와 대조적으로 부르고 있다.

저지는 아라카와강·에도강 하류의 삼각주와 매축지(埋築地), 다마강 하류의 삼각주와 매축지 등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해발고도 5m 이하의 저평한 땅이고, 특히 스미다강(隅田川:아라카와강의 하류) 동쪽의 고토(江東) 지역에는 ‘제로미터 지대’라고 불리는 해면(海面) 이하의 땅도 있다. 이즈·오가사와라의 두 제도는 도쿄도에 속하는 태평양상의 화산도이다. 이즈제도는 활화산인 미하라산(三原山)이 솟아 있는 오시마섬(大島) 등 이즈7도(伊豆七島)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로 후지하코네이즈(富士箱根伊豆) 국립공원에 속해 있다.

오가사와라제도는 북위 27°부근에 있는 30여 개의 섬으로 된 제도로, 그 전역이 물새 번식지로서 대부분의 물새들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는 여름에 고온다우하고 겨울에 비교적 한랭건조한 기후를 보인다. 1월 평균기온 4.1℃, 8월 평균기온 27.1℃, 연평균기온 15.6℃이고, 연강수량 1,405mm이다. 도심부는 교외보다 기온이 높아 겨울에는 2~3℃ 정도 고온인 때가 있다. 이즈제도는 온난다우한 해양성기후로 하치조섬(八丈島)에서 연평균기온 18.1℃, 연강수량은 3,284mm이다.

우리는 동경에서 도쿄 디즈니씨와 신주쿠 그리고 아키아바라를 둘러보았다. 세계적인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었다. 도쿄 디즈니 씨는 도쿄 디즈

니랜드 옆에 위치한 바다를 테마로 하는 공원인데 규모는 디즈니랜드에 비해 작았으나 젊은이들이 즐기기에 아주 좋은 곳 같았다. 대덕구는 물과 호수 그리고 철도와 고속도로가 그 존재 자체로서 경제 발전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도쿄의 거미줄 같은 철도와 하코네의 아름다운 호수를 보면서 우리의 현실이 교차되었다.

Ⅲ 맺음말

일본의 전국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냉철한 성격의 오다 노부나가, 지략이 뛰어난 임진왜란의 토요토미 히데요시, 인내심이 강한 도쿠가와 이에아스 등 3사람이 있다. 이들은 일본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이야깃 거리를 갖고 있고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이들보다 가장 존경하는 정치가로 사카모토 료마를 1위로 꼽는다고 한다. 사카모토 료마는 사무라이 출신으로 사심 없는 탁월한 협상 능력을 발휘하여 당시 혼란스런 정치 상황속에서 사쓰마·조슈동맹을 이끌어냄으로서 도쿠가와 막부의 실질적인 정치권력을 황실에 돌려주어 일본이 세계대국으로 발돋움한 메이지 유신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서구열강의 침략기에 중국과 조선이 내분으로 국력을 소모할 때 일본은 서구의 선진문물을 체계적으로 받아들여 국가를 근대적 산업국가로 발전시켰다. 일본은 和의 나라이다. 일본역사의 특징은 남의 것을 받아들이되 언제나 자기 것으로 변형시켜 곁으로는 바뀐듯해도 정신적 뿌리는 항상 일본의 정신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변혁의 시대마다 和魂의 정신으로 통합하고 협력해 왔다. 우리가 돌아본 일본은 이러한 철학에 의해 긴 시간을 다져 온 역사적 산물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임진왜란과 한일합방의 치욕 속에서 우리는 일본을 무조건 배척하고 또 일부는 맹신하고 있다. 6박 7일의 배낭연수기간 동안 우리는 일본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는 없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위대한 일본의 모습을 보았고 반복되지 않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좋은 모습을 더 배우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